

한국 다문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문화적응 모형 탐색: 광주·전남지역 일본,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중심으로*

남 순 현¹⁾

호남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 다문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문화적응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이다. 연구대상자는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총 54명(일본 12명, 중국 10명, 조선족 11명, 베트남 10명, 필리핀 11명)이고, 연구기간은 2009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국적별로 거주기간(2년 전후)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에 참가했고, 면담내용은 녹취된 후 전사하여 Giorgi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질적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일상생활의 어려움, 가족갈등, 자녀양육, 성 역할, 사회적 편견, 자치모임, 친정 돈 송금, 지자체 서비스 활용 및 향후 한국생활적응을 위한 준비 등에서 거주기간별 심리적응의 차이를 보였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문화와 자국문화 사이에서 겪는 문화충격은 제사, 음식, 대중탕 및 기후에 따른 생활습관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토착심리적 문화정서(예, 우리성, 내집단-외집단, 체면, 정, 한, 눈치, 겸손, 인고, 마음의 빚, 행복 등)를 동아시아 5개국 여성들의 문화정서와 비교해 본 결과, 이는 비교문화적 토착심리 관점(cross-cultural indigenous approach)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이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와 문화정서에 대한 이해와 한국인의 편견없는 수용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문화적응, 여성결혼이민자, 한국 다문화공동체, 심리적응, 문화충격, 비교문화적 토착심리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7-H00043).

1) 교신저자 : 남순현, 호남대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로 330 (E-mail : shnam@honam.ac.kr)

I. 서론

세계화의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제결혼이 주자, 노동이주자, 유학생 등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자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출신지도 다양화되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의 수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운데, 유엔 국제이주기구(IOM)가 발표한 『2005년 국제이주 보고서』는 한국에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합법·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2007년 말 한국체류외국인이 100만을 넘어서면서 체류외국인의 수는 우리나라 인구의 2.2%를 차지하게 되었다(정기선, 2008). 체류외국인은 1997년과 비교하여 10년 사이에 17.5% 증가한 것이고,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0년에는 17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중에는 결혼을 매개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귀화를 신청하는 자가 2002년 2,351명에서 2007년 9,577명으로 30.4% 증가하였다(이코노미 포커스, 2009. 12. 2). 따라서 영주자격자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에 있다.

2008년 현재 한국의 전체 다문화가족은 144,385명이며,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다문화가족은 광주 2,807명, 전남 5,919명에 이른다(통계청, 2009). 국적별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광주지역의 2,451명이 중국(조선족 포함), 베트남, 필리핀, 일본 순으로 대다수(전체의 8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지역의 4,202명이 중국(조선족 포함), 베트남, 필리핀, 일본 순으로 전체의 71.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70%이상의 비율로 광주·전남지역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 베

트남, 필리핀, 일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사회는 급속히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21세기의 핵심 키워드가 ‘다문화’일 정도로 단일민족의 자긍심을 고수하던 한국사회는 지금 과도하게 다문화에 대한 담론으로 들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 지자체, NGO 및 학계에서 다민족·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이란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온 연구는 전무하다. 대다수 문화적응 연구가 자국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한국문화만을 강조해오면서, 한국사회에 동화되기 위해 필요한 생활적응책략들을 문화적응이란 미명하에 포장해온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겉으로 드러나는 문화특성 차이 이외 ‘우리성(wenness)’이란 하나의 개념에서도 한국에 거주하는 동아시아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는 상이하다(Nam & Han, 2009). 중국과 조선족에게 우리성(我們, 咱們)은 나와 타아를 구분하는 ‘나’의 개념에 가깝고, 일본인들에게 우리성(わたしたち)은 내가 여럿이 모여 있는 ‘나들’을 의미하며, 필리핀사람들에게 우리성(kapwa)은 같은 ‘동포’의 의미를 지니고, 베트남 사람들에게 우리성(chúng toi)은 ‘친족공동체’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한국 다문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문화적응 모형은 이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은 그 형성과정에서부터 일반 가족과 달리, 언어, 문화, 생활방식 및 심리내적인 측면에서 다양성을 지닌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문제는 이문화 구성원간의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가족 내외의 심리적응 및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한국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은 심리내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가족심리적 측면 등 다각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다문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그림 1과 같은 문화적응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¹⁾ 다시 말해서, 한국사회의 다문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문화적응 모형은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서 겪는 심리내적인 혼란을 예방하고, 여성결혼이민자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활용함과 동시에,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족형성의 독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서에 맞는 ‘더불어 함께’ 공존하는 창조적 다문화공동체 모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림 1의 한국 다문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문화적응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로 그림 2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심리내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1.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사회문화적 적응

한국사회가 다문화가족에게 집중하게 된 계기는 외국인 이주자, 특히 결혼이란 매개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인권보호차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노동이주자와 달리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순간부터 한국인으로 생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한국인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이주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온 정부·지자체 혹은 재야단체들의 관심이나 학계의 연구들은 몇 가지 점에서 제한점을 지닌다. 정책적 시사점에서 볼 때, 첫째, 다문화 ‘동화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다문화지향적인 정책이지 진정한 다문화정책은 아니다. 둘째, 당사자인 여성결혼이민자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정부와 NGO 중심의 중앙주도적인 정책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 측면에서 볼 때, 다문화가족 내에서 겪는 상이한 문화차만 강조하고 있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진정한 심리사회문화적 관심과 이해는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권익 측면에서, 지나치게 한국의 소수자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대변하면서 함께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한국인, 즉 배우자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이는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배우자나 가족들의 문제가 아닌 크게는 한국인에 대한 오히려 역차별적인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거 한국인은 자신의 문화를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다른 문화권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할 필요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결혼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 간 접촉에 의한 다양한 문화접촉은 문화적응이라는 새로운

1) 그림 1에서, 지역사회교육프로그램과 결혼이주 정책은 현 한국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및 서비스를 의미하며, 결혼이민자 문화수용 화살표는 한국인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변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한국문화 적응 화살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국문화 이해를 통한 한국문화와의 소통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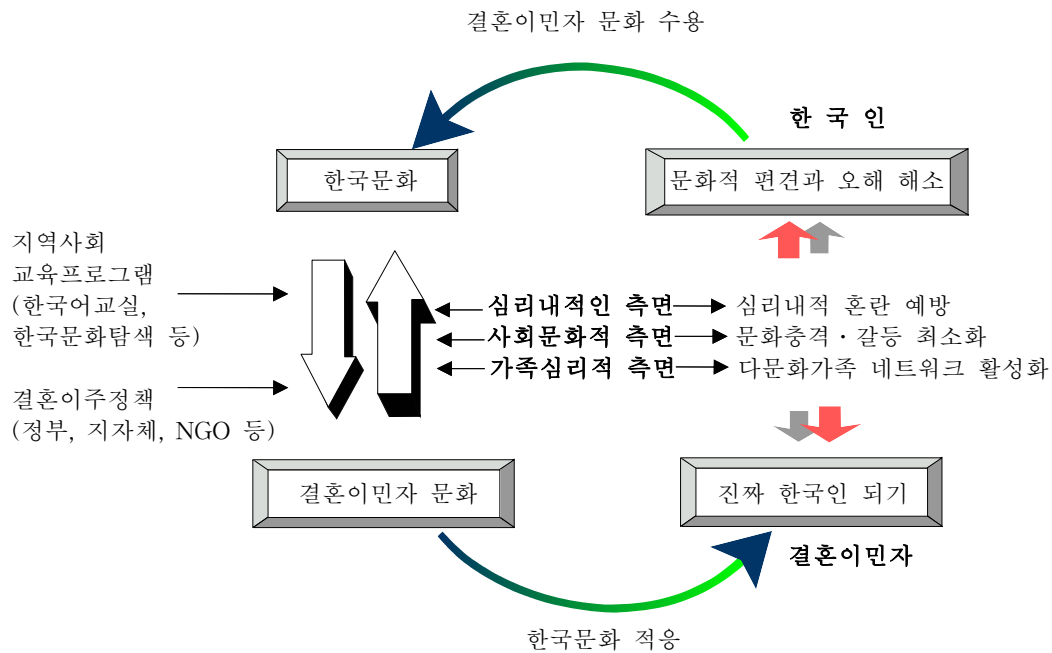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사회의 다문화공동체구현을 위한 문화적응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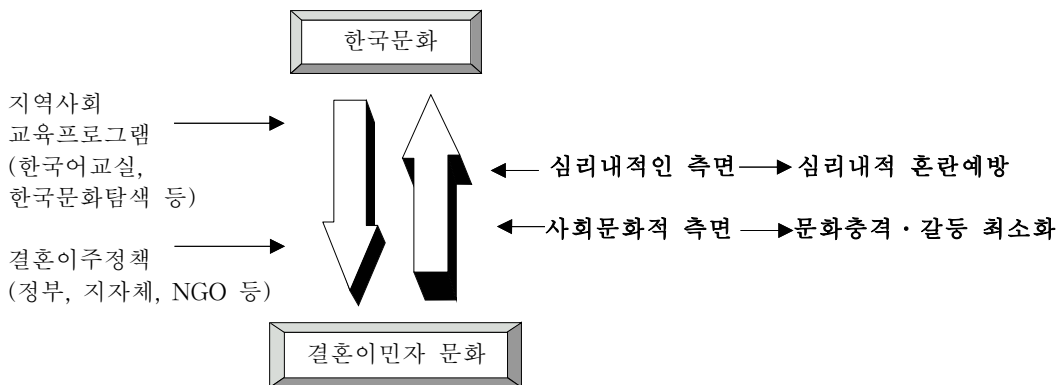


그림 2. 한국사회의 다문화공동체구현을 위한 문화적응 1단계 모형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문화적응(acculturation)은 문화접촉 상황에서 나타나는 집단수준의 변화를 일컫는다. 다시 말해서, 문화적응은 문화적 근원이 다른 사람들 간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일어나는 변화이다

(Redfield, Linton, & Herskovits, 1936).

문화적응(acculturation)은 원칙적으로 중립적인 용어로서 상호작용을 하는 두 집단 모두에게 해당되나, 실제적으로는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많은 변화를 겪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Berry, 2003).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 또한, 자국의 문화적 가치와 생활방식을 포기한 채 한국의 문화만을 강조하는 강요된 동화과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초기 국내연구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를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로 간주한 채 여성을 바라본 여성학과 문화인류학분야에서 국제결혼과 이주여성들의 갈등, 인권유린, 한국가부장제의 문제(윤형숙, 2004; 홍기혜, 2000) 등을 부각시켜 온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점차 국제결혼을 둘러싼 다문화현상을 분석하는 연구(김영란, 2005; 문경희, 2006)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긍정적 적응을 위한 자국문화와 주류문화에 대한 이해(박주희, 정진경, 2007)와 같은 연구들이 보고되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대한 이해가 재조명되고 있다.

문화간 접촉 상황은 문화적 다양성이 구성되는 상호문화화(interculturation)가 강조되어야 한다(Camilleri & Malewska-Peyre, 1997). 상호문화화는 새로운 문화의 형성이라는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는 특징이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문화적응과 유사한 개념이다(정진경, 양계민, 2004). Berry(2003)는 문화적응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더라도, 문화적응 연구에서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문화적응은 둘 혹은 그 이상의 문화집단과 그 속의 개인구성원이 접촉하면서 그 결과로 생긴 문화적, 심리적 변화의 이원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문화적응은 심리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의 두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Searle & Ward, 1990). 심리적

적응은 내적 심리적 결과로서 개인적 문화정체성, 좋은 정신건강, 그리고 새로운 문화환경에서 개인적인 만족감의 성취 등을 말한다. 사회문화적 적응은 개인이 새로운 환경과 접촉하면서 문화접변을 겪는 외적 심리적 결과로서 문화의 변화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Berry(2003)가 강조하는 문화적응의 수준과 동일한 구분이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여성결혼이민자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를 간과한 채, 지나치게 한국의 문화적 가치만을 강요하는 동화에 치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사회에서 요구하는 문화적응 속에서 오히려 여성결혼이민자는 융합되어버렸거나 소외되고 있다.

2. 한국사회의 다문화 이해: 일본,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서구의 개인주의에 비해 한국을 집단주의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의 다문화가족을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국적이 대부분 동남아시아권에 속한다고는 하지만, 그들 고유의 각 문화를 동양의 집단주의로 획일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Singelis, Triandis, Bhawuk와 Gelfand(1995)도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이 문화를 설명하는데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애매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우리는 지금 Singelis 등(1995)의 대인관계의 위계나 평등에 따른 수직적 교류와 수평적 교류를 통한 문화범주이론을 우리 문화의 틀에 맞추어 재해석해보아야 한다. 수평적 집단주

의는 ‘민주공동체 의식’, 수평적 개인주의는 ‘바람직한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는 ‘이기주의’, 수직적 집단주의는 ‘가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한경미, 나영주, 2004). 그러나 유교적 전통이 뿌리 깊은 우리 문화는 평등의 개념보다는 서열성을 강조하는 위계적인 문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뿌리 깊게 잔존해 있는 우리 사회의 서열성은 우리 사회를 극단적인 가족주의에서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변모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남순현, 2008). 이와 같은 경향은 베트남에서도 그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외세 침략과 이념 대립으로 남과 북의 분열, 중국의 유교사상에 영향을 받은 엄격한 서열성에 따른 세대차이 및 농경사회의 집단적 보수성(Ellis, 2005)은 오늘날 베트남이 서구화되고 현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직적인 축이 강하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현대 일본사회의 조직체 속에서 집단주의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타데(상하)관계와는 별개로 요코(수평)의 원리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이다(황달기, 1998). 따라서 어릴 때부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엄격하게 훈육받아 온 일본인의 가치규범은 외부인에게는 겉으로 보기에 개인주의 경향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는 강한 집단주의에서 파생된 결과이다. 즉, 일본 사회는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서열성과 달리, 개인 간 수평적 교류(요코)가 더 활성화되어 있는 수평적 집단주의로 보아야 마땅하다.

수평적 집단주의는 필리핀에서도 지배적이

다. 필리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회집단인 바랑가이는 다토(dato) 라는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혈연공동체이다. 지금까지도 필리핀인들에게 바랑가이는 부모, 자식, 친척, 노예로 구성된 대가족을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바랑가이는 우두머리의 어느 한 쪽에 종속되기보다 우정이나 혈연으로 묶인 평등한 관계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각 바랑가이 우두머리의 지휘아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운다(Roches & Roches, 2005). 따라서 필리핀의 서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랑가이를 이해하여야 한다. 즉, 필리핀은 혈연공동체에 기초한 집단주의가 강한 민족이지만, 일본의 요코처럼 수평적 교류의 축이 활성화되어 있는 수평적 집단주의이다.

한편, 조선족은 ‘재중동포’, ‘재중교포’, ‘재외한인’ 또는 ‘중국의 조선족’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으며,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부르는 용어만큼이나 다양하다. 한국정부는 그들을 기본적으로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반면, 많은 시민단체나 국민들은 ‘동포’임을 강조한다(임채완, 김경학, 2002). 중국의 시장경제원리와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농촌 집거구를 중심으로 한 조선족 사회가 뿌리 채 흔들리면서, 1990년대 이후 많은 조선족이 한국으로 이주해왔고 다문화가족을 형성했다. 조선족은 법적으로는 중국인이지만, 혈통적으로는 한민족이다. 하지만, 그들이 지니고 있는 ‘이중적 정체성(dual identity)’ 또는 ‘이중적 존재’는 한국의 다문화가족 안에서 오히려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한국사회는 그들에게 태어나고 성장한 중국사회와 문화규범에서 벗어나 철저히 한국인으로

생활하기를 바란다. 이는 한국사회가 조선족을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에서 이해하려고 한 것이지만, 오히려 조선족에게는 이것이 더 민족정체성을 혼란시키는 이중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족에 대한 이해는 민족정체성 혹은 집단정체성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다문화공동체 미태상을 제언해보기 위해 문화적응을 연구한 선행 연구자(Berry, 2003; Camilleri & Malewska-Peyre, 1997; Searle & Ward, 1990)들의 기본 관점을 보다 확장하여, 한국문화와 여성결혼이민자 자국문화간의 상호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써 그림 2의 연구가설모형을 탐색해보는데 있다. 그림 2의 연구가설모형은 한국사회 다문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문화적응 모형(그림 1)의 첫 단계로 광주·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혼란과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해 심리내적 측면, 즉 문화간 상호교류 구성원들의 심리내적인 적응양상을 알아보고, 한국인과 여성결혼이민자들 상호간의 문화충격을 최소화하고 문화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교류 문화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문화간 독특성과 유사성을 보이는지 사회문화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의 연구가설모형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에

따른 국적별 심리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여성결혼이민자는 국적별 문화간 차이와 유사성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3. 한국의 토착심리적 문화정서와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별 문화정서에는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일본 12명, 중국 10명, 조선족 11명, 베트남 10명, 필리핀 11명의 여성결혼이민자 총 54명이었다. 각 국적별로 선별된 연구대상자 54명은 거주기간(2년 전후)에 따라 5명 내외씩 두 집단으로 나뉘어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에 참여하였다. 거주기간에 따라 면담 집단을 구분한 것은 이주자 적응에 관한 기존 문헌에서 이주자가 적응과정상 심리적, 사회문화적 안정기에 들어가기에는 적어도 1년 6개월 이상 걸린다는 보고에 근거한 것이며, 여성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선 최소한 2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5개국의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거주기간 2년을 전후하여 국적별로 적응초기집단과 적응안정기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총 2회 초점집단면담에 참여하였다. 면담 시기는 2009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징

사례 번호	여성 연령	남편 연령	국내 거주기간	결혼 기간	결혼 만족	결혼 경로	결혼 형태	여성 직업	남편 직업	여성 교육수준	남편 교육수준	경제수준 (만원)	자녀수 (연령)
일본 1	38세	37세	1년	8개월	매우 불만	종교	여초혼 남초혼	무	관리 사무	고졸	대졸	100- 200	-
일본 2	35세	41세	1년 5개월	1년 2개월	매우 불만	종교	여초혼 남초혼	무	자영	고졸	고졸	200- 300	-
일본 3	27세	35세	1년 8개월	1년 5개월	매우 불만	종교	여초혼 남재혼	무	버스 기사	고졸	전문대졸	100- 200	1명 (1세)
일본 4	37세	41세	1년 10개월	1년 7개월	다소 만족	종교	여초혼 남초혼	무	포크 레인 기사	전문대졸	고졸	200- 300	-
일본 5	28세	34세	1년 6개월	1년 7개월	다소 만족	종교	여초혼 남초혼	무	무	전문대졸	고졸	잘 모름	1명 (1년 8개월)
일본 6	43세	40세	13년	13년 10개월	다소 만족	종교	여초혼 남초혼	농사	회사원	고졸	고졸	100- 200	4명
일본 7	47세	48세	12년 9개월	12년 6개월	다소 만족	종교	여초혼 남초혼	방문 지도사	공장	고졸	중졸	200- 300	2명 (9세, 11세)
일본 8	49세	49세	13년	13년	보통	종교	여초혼 남초혼	세차장	세차장	고졸	중졸	100	유방암
일본 9	43세	44세	16년	15년	보통	종교	여초혼 남초혼	무	회사원	고졸	고졸	100- 200	3명 (8,11, 13세)
일본 10	44세	48세	15년	14년	다소 만족	종교	여초혼 남초혼	아동 양육 지도사	회사원	고졸	중졸	100- 200	2명 (10, 12세)
일본 11	35세	33세	12년 9개월	13년 8개월	보통	종교	여초혼 남초혼	방문 교사	회사원	고졸	대졸	400 이상	3명 (5,8, 10세)
일본 12	39세	45세	10년	4년 5개월	다소 만족	종교	여초혼 남초혼	일어 강사	무직	대졸	전문대졸	100- 200	2명 (7세, 9세)
중국 1	34세	43세	4년 1개월	4년 6개월	보통	지인 소개	여재혼 남재혼	무	전기 설비	중졸	고졸	100- 200	-
중국 2	37세	41세	3년 2개월	3년 1개월	다소 만족	지인 소개	여초혼 남재혼	무	건설	고졸	고졸	100- 200	1명 (3세)
중국 3	34세	48세	3년 3개월	3년 3개월	매우 만족	지인 소개	여초혼 남초혼	무	회사원	고졸	대졸	300- 400	-
중국 4	31세	38세	4년 3개월	4년 9개월	보통	연애	여초혼 남초혼	무	회사원	전문대졸	고졸	100- 200	1명 (4세)
중국 5	34세	39세	3년 1개월	3년 1개월	약간 불만	중개 업소	여초혼 남초혼	식당 설거지	공장 직원	고졸	고졸	400 이상	1명 (19세) 입양)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징

(계속)

사례 번호	여성 연령	남편 연령	국내 거주기간	결혼 기간	결혼 만족	결혼 경로	결혼 형태	여성 직업	남편 직업	여성 교육수준	남편 교육수준	경제수준 (만원)	자녀수 (연령)
중국 6	23세	39세	6개월	6개월	매우 만족	중개 업소	여초혼 남초혼	무	공장 직원	중졸	대졸	모름	임신
중국 7	33세	33세	10개월	1년	매우 만족	연애	여초혼 남초혼	무	회사원	고졸	전문대졸	100- 200	임신
중국 8	27세	35세	2년	9개월	매우 만족	연애	여초혼 남초혼	무	주유소	중졸	전문대졸	200- 300	임신
중국 9	29세	47세	1년 4개월	1년 4개월	보통	중개 업소	여초혼 남초혼	무	노무자	중졸	고졸	100- 200	임신
중국 10	26세	40세	8개월	8개월	다소 만족	중개 업소	여초혼 남재혼	무	회사원	중졸	전문대졸	모름	임신
조선족 1	31세	29세	2년 7개월	2년 7개월	매우 만족	연애	여초혼 남초혼	쇼핑몰	조선소	고졸	고졸	100- 200	-
조선족 2	23세	32세	1년 11개월	1년 11개월	매우 만족	중개 업소	여초혼 남초혼	알바 (식당)	회사원	중졸	고졸	100- 200	-
조선족 3	25세	32세	1년 5개월	1년 5개월	다소 만족	지인 소개	여초혼 남초혼	무	회사원	중졸	전문 대졸	100- 200	-
조선족 4	47세	53세	2년	2년	다소 만족	지인 소개	여재혼 남재혼	무	건축 회사	대졸	대졸	100- 200	-
조선족 5	36세	39세	2년 7개월	2년 7개월	매우 만족	지인 소개	여초혼 남초혼	무	프로 그래머	대졸	대졸	100- 200	동거 (1세, 3세)
조선족 6	27세	38세	6년 4개월	6년 4개월	매우 만족	지인 소개	여초혼 남초혼	간호 조무사	단청	고졸	고졸	300- 400	동거 6세, 4세)
조선족 7	39세	43세	3년 7개월	3년 5개월	보통	지인 소개	여재혼 남재혼	무	직공	대졸	대졸	100- 200	동거 (6세, 13세)
조선족 8	39세	47세	13년 4개월	13년 4개월	보통	기타	여초혼 남초혼	방과후 강사	영업	대졸	고졸	200- 300	동거 (6세, 13세)
조선족 9	27세	41세	5년 5개월	3년 5개월	다소 만족	지인 소개	여초혼 남초혼	공장	일용직	중졸	고졸	100 미만	동거 (4세, 5세)
조선족 10	36세	45세	9년 9개월	10년	다소 만족	지인 소개	여초혼 남초혼	시민 단체	현장 관리자	전문대졸	고졸	200- 300	동거 (8세, 10세)
조선족 11	34세	42세	11년 7개월	11년 7개월	다소 만족	연애	여초혼 남초혼	강사 통역	건설	대졸	대졸	300- 400	동거 (자녀 두명)
베트남 1	23세	45세	2년 11개월	3년 1개월	매우 만족	중개 업소	여초혼 남초혼	무	기계공	초졸	중졸	모름	1명 (3세)
베트남 2	24세	38세	3년	3년	매우 만족	지인 소개	여초혼 남초혼	무	모름	초졸	전문대졸	100- 200	-
베트남 3	22세	40세	2년 8개월	2년 8개월	다소 만족	지인 소개	여초혼 남초혼	무	회사원	고졸	대졸	100- 200	-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징

(계속)

사례 번호	여성 연령	남편 연령	국내 거주기간	결혼 기간	결혼 만족	결혼 경로	결혼 형태	여성 직업	남편 직업	여성 교육수준	남편 교육수준	경제수준 (만원)	자녀수 (연령)
베트남 4	25세	43세	2년 10개월	3년	매우 만족	지인 소개	여초혼 남재혼	무	개인 택시	고졸	고졸	100- 200	1명 (2세)
베트남 5	27세	39세	4년 11개월	5년	매우 만족	지인 소개	여재혼 남재혼	무	포크 레인 기사	중졸	전문 대졸	100- 200	2명 (3세, 5세)
베트남 6	24세	36세	2년	2년 6개월	다소 만족	중개 업소	여초혼 남초혼	무	농사	중졸	전문 대졸	100- 200	1명 (2세)
베트남 7	26세	49세	1년 8개월	2년	다소 만족	지인 소개	여초혼 남재혼	무	사업	중졸	고졸	100- 200	-
베트남 8	22세	40세	1년 4개월	1년 8개월	매우 만족	지인 소개	여초혼 남초혼	무	회사원	중졸	대졸	100- 200	1명 (1세)
베트남 9	27세	37세	1년 7개월	1년 7개월	매우 만족	지인 소개	여초혼 남초혼	무	배달	고졸	중졸	100- 200	임신
베트남 10	26세	49세	1년 3개월	1년 8개월	매우 만족	중개 업소	여초혼 남재혼	무	인테 리어 수리	중졸	중졸	300- 400	-
필리핀 1	21세	47세	4개월	6개월	매우 만족	중교	여초혼 남초혼	영어 강사	모름	고졸	고졸	모름	-
필리핀 2	24세	30세	5개월	8개월	매우 만족	연애	여초혼 남초혼	무	삼일 계약	대졸	대졸	100- 200	-
필리핀 3	32세	48세	1주일	4개월	다소만 족	중개 업소	여초혼 남초혼	무	결혼 회사	대졸	대학원 졸	모름	-
필리핀 4	25세	42세	6개월	8개월	매우 만족	중개 업소	여초혼 남재혼	영어 강사	공장 직공	대졸	고졸	100- 200	-
필리핀 5	26세	42세	1년 5개월	1년 1개월	매우 만족	지인 소개	여초혼 남재혼	영어 강사	모름	대졸	대학원 졸	400 이상	-
필리핀 6	34세	44세	9년 2개월	9년 2개월	약간 불만	중교	여초혼 남초혼	영어 강사	용접	전문 대졸	초졸	100 이하	2명 (6세, 9세)
필리핀 7	35세	-	6년 9개월	3년 2개월	불만	지인 소개	여초혼 남초혼 (사별)	영어 강사	설비	전문 대졸	고졸	100 이하	1명 (1세)
필리핀 8	25세	43세	3년 3개월	3년 7개월	약간 불만	중개 업소	여초혼 남재혼 (별거)	무	모름	고졸	초졸	100 이하	1명 (1세, 임신)
필리핀 9	26세	-	4년 2개월	6개월	매우 불만	중개 업소	여초혼 남초혼 (이혼)	영어 강사	-	대졸	-	100 이하	-
필리핀 10	30세	44세	6년 4개월	9년 4개월	다소 만족	기타	여초혼 남초혼	영어 강사	회사원	대졸	중졸	300- 400	3명 (6,7, 8세)
필리핀 11	28세	42세	6년 5개월	3년 5개월	약간 불만	중개 업소	여초혼 남초혼 (이혼)	영어 강사	무	전문 대졸	고졸	100 미만	1명 (6세)

2. 연구방법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일본,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5개국 54명의 여성결혼이민자는 거주기간(거주기간 2년 전후)에 따라 그리고 면담주제에 따라 2회씩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에 참여하였다. 각 회기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었고, 오전 회기에서는 심리적응과 관련된 주제들이, 오후 회기는 문화충격과 문화정서 차이에 대한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면담은 연구자가 기존 연구를 토대로 고찰한 반구조화된 질문에 대해 초점집단면담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각 회기는 3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나, 진행에 따라 다소 빠르게 혹은 다소 지연되었다. 조선족을 제외한 모든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초점집단면담에는 이중언어사용자들의 통역을 통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초점집단면담의 진행과정은 연구자가 문헌을 통해 철저히 사전에 준비한 내용들을 반구조화하여 면담기록지에 기록한 내용에 따라 진행되었고(예를 들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 혹은 어떤 점에서 한국과 여성결혼이민자의 나라와 가장 다르다고 생각되는가? 등), 면담의 모든 진행과정은 연구대상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녹음기에 녹음되었다.

3. 자료 분석

초점집단면담의 분석은 주로 심층면담 진행표에 따라 특정 주제에 대해 출신국가별로 5명 내외씩 총 54명의 여성결혼이민자가 2회

구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먼저, 심층면담 분석과정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질문하기와 비교하기가 활용되었는데(Strauss & Corbin, 1998), 이 과정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특정 주제에 따라 매 회기마다 녹음된 내용들은 참여자가 사용한 언어 그대로 전사하여 녹취록을 만들어 Giorgi(1985)의 4단계의 텍스트 분리작업에 따라 분석되었다.

현상학적 질적 분석은 첫째, 전사된 녹취록의 면담내용을 연구자 외 3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면서 면담내용 전체에 대한 느낌을 그대로 파악하였다. 둘째, 수집된 원자료를 심리적응, 문화차이, 토착심리적 문화정서 등 연구목적의 특정 주제에 맞춰 심리학적 관점을 가지고 ‘의미단위’를 구분한 후 일상적 표현을 심리학적 용어로 전환하였다. 셋째, 의미단위들에서 공통된 경험으로 묶어진 하위구성요소들을 추출하였다. 예컨대, 언어와 음식 등의 일상적응문제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이라는 공통요소로 묶였고, 부부갈등, 고부갈등 및 생활비 관리는 ‘가족갈등’이라는 주제로 유목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 외 3인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심리학적 관점을 가지고 전환된 의미단위들을 여성결혼이민자가 문화적응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조직적 기술로, 현상을 구조적 기술로 통합한 후, 추출된 각 개념의 상호비교와 검토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개념들과 유목화범주들의 타당화 작업을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본,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거주기간에 따른 심리적응 차이

Giorgi(1985)의 4단계 텍스트 분리작업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심리적응 현상을 구조적 기술로 통합한 결과는 일상생활의 어려움, 가족갈등, 자녀양육, 성 역할, 사회적 편견, 자치모임, 친정 돈 송금, 취업, 지자체서비스 활용, 향후 한국생활적응을 위한 준비 등이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거주기간에 따른 국적별 심리적응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일상생활의 어려움, 성 역할 및 사회적 편견이었다.

첫째, 표 2에서처럼 일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거주기간별 한국생활을 하는데서 겪는 심리적응의 문제는 일상생활의 어려움, 성 역할 및 사회적 편견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먼저, 거주기간 2년 이하 적응초기집단의 일본 여성은 적응안정기 집단에 비해 한국의 교통체계와 제사를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교통수단이 버스잖아요 일본에서 많이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시간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여기는 버스타고 버스가 안 옵니다. 버스가 많이 없으니까 운전도 굉장히 빨리 달려서 막 심장이 떨리고 버스시간에 딱 시간 지키지 않고 마구잡이로 그냥 옵니다. 알 수 없습니다. / 자동차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고 교통문화가 다릅니다. 자동차가 우선이고 신호등이 빨간색이라도 우측으로. 일본에서는 빨간색이라면 우측으로 못가요 / 차간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제사 힘들어요 음식도 많이 만들고 시어

머니가 하고 내가 조금 도와주고 / 일본에서는 춘분, 추분 딱 두 번 지내요 / 성묘는 자주해요 한국처럼 제사음식을 하지는 않아요 /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3시 4시에 준비하신텐요 시간이 있으니까 자라고 하시는데. 일어났더니 제사가 다 끝났어요”

둘째, 성 역할에 있어서 적응초기 일본 여성들은 아직 신혼이어서 대체로 남편들이 가사 일에 협조적인 반면(“전부같이 해요 남편이 아버지 같습니다.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같이. 빨래 너는 것도 / 제가 몸이 아플 때만 남편이 청소 중이에요 깨끗이 하는 것을 좋아해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적응안정기 일본 여성들은 한국의 가부장적인 권위 속에서 남편이 가사 일을 잘 도와주지 않았다(“안해요 뭐 떨어진다고 해서 안해요 / 시어머니 있을 때 없을 때 달라요 안계시면 부엌에 들어와요 설거지하는 거 도와주는 건 아니고 필요한 거 가지러.”).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오래 거주한 적응안정기 일본 여성들은 한일역사로 인한 한국인의 감정 때문에 심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저는 제가 못한다고 무시하고 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제가 뭐 그렇게 말 안해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한일전하면 마음속으로는 일본을 응원하고 겉으로는 한국을 응원하고 가정평화를 위해서. 일본이 옛날에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막 돌맹이를 던지기도 하고 무서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통일교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편견 때문에 한국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결혼하려고 남편이 통일교로 했습니다. 종교자체에 대한 편견 때문에. 선진국인데 여기 왔냐”).

표 2. 일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에 따른 심리적응 차이

	2년 이하	2년 이상
일상생활의 어려움	· 교통체계 차이 및 교통수단 이용 불편 · 음식 · 언어차이(정확한 의미전달의 어려움) · 제사(일본, 성묘정도)	· 음식(양, 매운 맛, 김치 등) · 언어(사투리, 억양) · 시모와의 갈등
가족갈등	· 부부갈등-남편의 잦은 이직, 생활비문제 · 고부갈등-없음	· 부부갈등-예고 없는 남편의 외출 요구, 의사소통문제, 장애아 문제 · 고부갈등-애매한 남편태도, 시모폭력, 친절과의 잦은 전화통화(시모와의 심한 갈등으로 임신 중에도 먹고 싶은 고기 못 먹고 빈혈로 고생하면서 농사 짓는 여성도 1명 있었음)
자녀양육	· 시부모가 교육비 문제로 많은 자녀를 원하지 않음 · 자녀는 한국인으로 성장하길 바람(자녀와의 대화는 일본어보다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 · 향후 내 자녀는 일본어, 한국어, 영어에 모두 능통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람	· 한국의 높은 사교육으로 힘들 · 언어문제로 자녀학교와의 교류 힘들 (자녀공개 수업 시 일본인이라고 그냥 나가 버릴 때 당황스럽다) · 한국인처럼 자녀에 대한 집착 심하지 않음 (한국인 자녀 다치면 심하게 걱정하는데, 일본에서는 그냥 묻질러주는 정도)
성 역할	· 대체로 한국남자가 일본남자보다 가사 일을 더 많이 도와주는 편이지만, 몸이 아플 때나 임신 후 남편이 가사 일을 도와주는 정도(친정아버지처럼 잘해준다는 예외 여성도 1명 있었음)	· 세대 차이는 있지만, 일본남자와의 차이는 잘 모름 · 시부모 존재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집안일은 잘 안하는 편임('뭐 떨어진다')
사회적 편견	· 한국사람 맘이 따뜻한데(비스타면 할머니 짐들어주고 자리양보하기 등),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안녕 못해요'라고 냉대 할 때 마음 아픔	· 한일 간 역사(독도문제)와 문화 때문에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됨 · 한국 친구사귀기 힘들 · 통일교에 대한 심한 한국인의 편견 ('우리 일본인은 도망가지 않아요')
자치모임	· 종교중심의 교회활동 (한국문화, 요리, 한국생활 등을 익힘)	· 지역별 카페를 통한 자치모임활성화 (정보교환 및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 받음)
친정 돈 송금	· 친정에는 선물정도 보냄 · 시부모에게 용돈과 생활비 드림	· 부모가 일본에서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친정에 돈을 송금하지 않아도 됨
지자체 서비스 활용	· 지역 결혼이민지원센터 활용 (한국어, 요리, 컴퓨터 등) · 취업관련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 필요 · 센터를 이용하는 이주여성들이 어린 자녀와 함께 오기 때문에 시끄럽고 불편함	· 결혼이민지원센터: 한국어교육, 구연동화, 종이접기 자격증 취득, 자립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더 많이 필요로 함.
향후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준비	· 한국말에 능통해야 함 · 한국식 자녀 양육방법 익히기	· 한국어를 빨리 익혀 한국 사람이 되어야 함 · 자녀 잘 키우기 · 자격증 취득 후 남편에게서 자립하기

둘째, 표 3에서 중국 여성은 다른 국적의 여성결혼이민자들과 달리, 적응초기집단에서 자녀양육 및 자녀계획과 한국인의 틀에 갇힌 삶에 대한 답답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외에 거주기간별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사람 빨리 빨리하는 거. 그냥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적응안정기에 있는 중국 여성은 생활습관과 남녀차별(“남편은 하늘, 부인은 땅”) 등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표 4에서 일본 여성처럼, 조선족 여성도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성 역할에서 적응기간에 따른 차이를 보였지만, 두 집단 모두 심한 사회적 편견으로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먼저, 적응초기 조선족 여성은 적응안정기 집단에 비해 국적 취득 전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움과 심한 우울 등을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호소하였다.

“저는 신분증을 이렇게 딱 제출하잖아요. 딱 처음에는 웃는 얼굴이에요 근데 말을 하다보면 이것이 왜 외국인인냐고 우리는 외국인인걸요 왜 외국인인냐고 자꾸 물어봐요 아니에요 외국인이예요 이러면 얼굴표정이 딱 변해져요”

“저는 와 가지고 애를 두 명 낳았거든요 애를 키우고 있으면서 크게 바깥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공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통대 다녔거든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하니까 조금 우울증이 올라나 이런 말하려면 눈물부터 나고

그래요 산부인과 의사예요 중국생활 괜찮았는데. 여기 와서 중국보다 못하니까 그거 좀 있어요 내가 마음을 아직 열지 못하는가. 남들 그런 눈길만 딱 보면 싫어요 실망되고”

둘째, 다른 국적의 여성결혼이민자들과 달리, 적응초기 조선족 여성은 서툰 한국어보다는 억양 등 한국어 사용에서 한국인과 차별화되는 것으로 인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셋째, 적응안정기 조선족 여성은 지나친 남존여비와 한국문화만을 고집하고 강요하는 시어머니의 며느리 간 차별대우 때문에 고부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아들이 데리고 들어온 며느리니까 무조건 받아들이고 살아나가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 당연하겠죠 아들은 자기 아들이니까. 아들을 뺏겼다 뭐. 그런 서운한 생각도 들거고 며느리는 이제 또 외국에서 왔으니까. / 식구들이 밥을 먹잖아요 이것도 중국산 저것도 중국산. 그러시는 거예요 옆에 저 두고 중국산이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요 중국산이 어쩐다고 아이고 요것도 중국산이네 그런 식으로 저를 비웃는 느낌을 받았어요 / 복날 개고기를 먹으러 가는데. 시어머니가 저보고 집에 있으라고 하고 괜찮다고 저도 먹어요 했는데. 저는 자꾸 집에 있으라고 하고 큰 형님 집에 가서는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빨리 가자고 하고”

넷째, 성 역할에 있어서도 적응안정기 조선족 여성은 한국 남자는 중국 한족에 비해 게으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존여비사상이 강하다고 불평했다.

표 3.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에 따른 심리적응 차이

	2년 이하	2년 이상
일상생활의 어려움	· 어눌한 한국어 · 문화차이 · 음식(한국음식 잘 못하고, 중국 음식은 남편이 잘 먹지 않아서 속상하다) · 한국생활의 낯설음 · 제사	· 서툰 한국말(‘남편오기 전까지 말할 사람이 없다’) · 생활습관 차이(예, 좌식과 입식) · 매운 한국음식 · 자녀 양육 시 발생하는 어려움 · 문화차이(중국 제사, 지역에 따라 다름. 성묘, 주민명패, 화장, 간단한 음식준비 등) · 제사, 명절 및 시댁과의 관계 · 남녀차별(한국, ‘남편은 하늘 아내의 땅’ / 중국, ‘여성 지위 높다’)
가족갈등	· 부부갈등-생활비(혹은 생활비 관리), 남편과의 수면시간 차이, 남녀간 친분정도 오해로 인한 갈등(남편 여직원과의 관계), 남편의 음주, 흡연 및 잦은 노래방 출입 · 고부갈등-식사예절, 제사준비 및 시댁 모임 등으로 발생(이주여성 모두 현재 임신 중이기 때문에, 시모가 가사 일을 잘 도와주는 편)	· 부부갈등-시댁왕래 문제, 생활비, 형제에 대한 지나친 배려(남편 경제력을 생각하지 않고 형제를 무조건 도와줌), 무자녀(시댁에서 일부러 안 낳는 거라는 오해받음), 부동산 공동명의 문제, 심각한 남편폭력, 남편 음주습관(폭주하고 새벽에 들어온다) · 고부갈등-제사나 가족모임 때 혼자만 가사일 하는 것, 가족이나 친척 모임에서의 답답함(언어소통문제), 시모가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는데서 오는 불만
자녀양육	· 한중간 자녀 수 출산계획 차이 · 한국에 사니까 자녀가 한국인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학습, 학력 및 생활습관은 엄마와의 유대관계를 위해 중국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 엄마국적에 대한 편견 없이 성장하기 바람(‘엄마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에 창피하지 않다’) · 중국인의 여유를 배우고 성장하기 바람(한국인의 틀에 갇힌 삶 답답함)	· 자녀 출산 시 특별히 산후조리 해준 사람 없음(시모가 10일정도 산후 조리한 1명 여성만 제외) · 한국인으로 잘 성장하기 바람
성 역할	· 한국남성이 중국남성에 비해 가사 일을 잘 도와주지 않는 편(부인이 임신 중인데도 한국남성은 잘 도와주지 않음)	· 중국남성은 맞벌이하는 경우에도 가사 일을 서로 도와주지만, 한국남성은 남편 돌아오면 무조건 밥 차려야 함.
사회적 편견	· 중국어 말할 때 한국인의 차가운 시선 · 남편이 옆에 있어도 한국인과 대화할 때 남편에게 대화내용 확인할 때 기분 상함 · 중국인이라고 하면 불법체류자라는 편견 · 현재 기본에 관계없이 중국인보면 그냥 웃는 것 기분 나쁨	· 중국인이라면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음 · 놀이터에서 자녀들과 놀 때, 중국 이주여성이라고 하면 아파트 평수부터 물어 봄 · 고용주의 불법체류자 취급
자치모임	· 한국에 중국이주여성 자치모임은 있지만, 잘 활용하지 않음(중국어로 얘기하면 속이 시원해지고 기분 좋음)	· 중국이주여성 자치모임은 있지만, 잘 나가지 않음 · 한국친구들에게 한국어, 생활, 자녀양육(아기 아플 때) 등 도움을 받지만, 중국친구에게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편임.
친정 돈 송금	· 한 달에 1, 2회 정도 부모가 생각하면 친정에 전화하는 정도(송금 안함)	· 적은 액수지만 매달 송금하는 여성도 있지만, 가족경제 곤란으로 송금 못하는 여성도 있었음
지자체 서비스 활용	· 지역결혼이민지원센터 활용(한국어교육, 한국요리 및 문화교류 지원) · 취업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원에 치료, 꽃꽂이, 비누공예 등을 더 배우고 싶음	· 지역결혼이민지원센터 활용(한국어, 꽃꽂이, 비드공예, 요리 등) ·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필요
향후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준비	· 한국음식 잘하고, 한국말 더 많이 배우고 가족들과 잘 지내기 · 자녀양육을 위해서 한국말 빨리 배우고, 한국친구도 많이 만들고 싶음	· 한국요리 더 많이 배우기 · 부부가 아프지 않고 편안히 존중하고, 서로의 꿈을 이루기 바람 · 아기출산(무자녀 이주여성의 예) · 한국에 적응 잘해서 잘 살고 있음(‘큰 집으로 이사한 것 친정어머니에게도 보여주고 싶다’)

표 4.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에 따른 심리적 차이

	2년 이하	2년 이상
일상생활의 어려움	· 제사문화차이(죽은 자와 함께 밥 먹기) · 서툰 한국말(억양차이) (한족 교육받은 여성 사례, 한국에 와서 처음 배운 말, 18) · 심리적 부적응 및 우울(예, 중국 산부인과 여의사 우울증) · 국적 취득 전 외국인 신분증으로 생활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과 한국인의 시선 · 음식 · 향수병	· 광주 지방사투리(예, 거시기) · 제사(중국, 3년상) · 경제적 어려움(‘잘 살기 어렵다’) ·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심한 편견
가족갈등	· 부부갈등-혼인신고 지연(중국연금문제), 남편음주 방식(월급 모두 지출), 남편의심(외출 등), 친정부 모 동거, 부부간 나이 차로 인한 세대갈등 · ‘싸움해야 된다. 그래야 정든다’(남편이 대체로 잘 해주는 편) · 대부분 생활비는 남편 관리 · 고부갈등-친정부 모 동거, 의사소통 곤란 (시모와의 접촉빈도에 따라 친밀도 다름)	· 부부갈등-시부모 용돈(부인 몰래 줄 때), 음식, 그 외 사소한 생활문제 · 고부갈등-지나친 남존여비, 한국문화강요, 여성결혼이민자 하대, 며느리 간 차별, 장자편애, 음식,
자녀양육	· 한중간 자녀 수 출산계획 차이 · 한족보다도 조선족 교육열 높은 편 · 전 부인자녀들과의 갈등(재혼가족 경우) · 자녀를 한국인으로 키우고 싶다고 응답한 여성도 있지만, 중국에서 교육시키고 싶다는 여성도 있었음(한국 사교육비부담과 한자 익히기 등의 이유) · 자녀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엄마 국적 알려줄 예정	·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하면 담임선생님 태도부터 달라짐(자녀교육 어려움) ·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자녀 따돌림
성 역할	· 남편에 따라 성 역할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국남자 가사일 안 도와줌(중국 한족남자가 가사일 잘 도와주는 편)	· 한족이 조선족 남자나 한국남자에 비해 여자들에게 잘해줌(중국에선 산후 조리도 남편이 해줌) · 한국 남자 게으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존여비사상이 강함
사회적 편견	· 조선족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남편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나이차이, 얼마나 못나서 조선족 여성을 만났을까?), 돈 악착같이 벌어서 도망간다, 위장결혼, 조선족 비하 한국인의 이중성 때문에 속마음을 털어놓기 힘들(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잘 해 주지만, 뒤돌아서면 다른 사람이 된다) · 공공기관 불친절 · 한국 경제수준 높아 대학생은 많이 배출했지만, 한국인의 기본 상식이 떨어짐(예, 중국 약 모두 가져냐고 물어봄 등)	· 조선족 비하와 편견(생활빈곤자 취급) · 한국인의 심한 배타성 · 한국인의 편협한 사고(중국사람 마음 커서 더 좋다, 즉 한국인 대인 정신없다) · 한국인의 이중성 ·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 벽부터 생김

표 4.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에 따른 심리적응 차이

(계속)

	2년 이하	2년 이상
자치모임	· 매달 한번 자치모임이 있지만 잘 나가지 않는 편(1명 제외) · 결혼할 때 함께 온 고국친구들이 어려울 때 가장 많이 힘이 됨	· 자녀학교의 자모모임 · 자치모임(형식적, 스트레스 푸는 정도, 남편이 외출을 싫어해서 못나감) · 고국친구와 의지하며 생활하지만, 한국생활 어려움 다 말하지 못하긴 마찬가지
친정 돈 송금	· 부모 생일 때 용돈 정도 이외에는 대부분 생활비를 친정에 보내지 않았음(‘돈이 많으면 보내고 싶다’, ‘자식노릇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자식은 먹다 남은 것 부모에게 준다’)	· 친정부모가 한국에서 함께 거주하는 이주여성 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친정에 돈을 송금하는 문제에 민감하지 않았음
지자체 서비스 활용	· 국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만족(올해(2009년) 유난히 지원이 많은 것 같다, 지난달(2009. 3)부터 인터넷지원금 받음(15,000원씩), 다문화축제, 합동결혼식 등) · 구청과 동사무소 지원 활용 · 평생교육원 활용(자격증취득 후 대학진학 준비) · 지역 결혼이민지원센터 활용: 한국어교육(한족 교육받은 1인만), 김장, 무료 쌀 제공. 꽃꽂이 등 · 비즈공예, (운동과 헬스도 할 수 있는) 스포츠 마사지, 한국문화와 역사 등을 더 배우고 싶음	· 지역 결혼이민지원센터 활용을 덜어짐(‘우리보고 한글 가르치라고 하는데 시간 안된다’) · 지자체서비스 지원 활용(취업을 위한 여성용 인력개발센터 무료교육, 교육청 지원(일년, 삼십만원),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컴퓨터 무료교육 등) · 조선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요망(예,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향후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준비	· 나부터 노력해서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한국 역사, 사회에 대해 배우고 한국친구 많이 사귀고 싶음 ·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돈 많이 벌기(인터넷 쇼핑몰 운영 여성사례) · 정부지원 많으니까 말도 다르고, 문화차이 있지만, 앞으로 잘 살 수 있음 · 한국친구 사귀기	· 뭐든지 다 부딪쳐보고, 부딪치면서 깨지더라도 적응하고 싶음

“중국 한족남자들이 더 잘해요. 한국남자들 총체적으로 말하면 게으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막 남존여비사상 이런 게 있어서 안 좋아요 / 여기 있는 남자들 솔직히 주방에 가서 밥하라 하면 안하잖아요. 빨래하라 하면 안하잖아요. 애기 돌봐주라 하면 안하잖아요. 중국은 오히려 바뀌어질 정도로 여자들이 진짜 거기는 여자천국이에요 / 우리가 처음에 한국에

오기 전에는 진짜 여자들이 한국에 가면은 자기 일 편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다 잘되어 있어서 전업주부로 그냥 집에만 남자들이 벌어주는 것 먹고 집에서 쓰면 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중국에서는 여자들이 더 인정을 받고 여자들 더 해주지.”

마지막으로, 두 집단 조선족 여성 모두 조

선죽에 대해 갖고 있는 한국인들의 비하와 편견 및 한국인의 이중성 때문에 뒤통수를 맞는 등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하였다.

“중국 약 모두 가져다. / 얼마나 못났으면 조선족 여성을 만났을까? / 돈 악착같이 벌어서 도망간다. 위장 결혼하는 사람 / 앞에서 웃는 얼굴로 잘해주지만, 뒤돌아서면 다른 사람이 된다.”

넷째, 표 5에서 적응안정기 베트남 여성에 비해 적응초기 베트남 여성은 한국의 교통체계와 날씨에서 한국과 베트남생활의 차이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베트남 오토바이, 자전거가 많이 다닌다. 차가 많다. 한국교통 편리하다. 베트남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 차가 안 온다. 택시 타고 여기까지 오니까 너무 힘들다. 버스 없으니까 조금 불편하고 지하철 있으니까 진짜 좋아요.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베트남 너무 더워요. 여름에 너무 더워요. 여기 더 안 더워요. 아래 베트남에서는 여름에 한국이 더 덥데요. / 한국 눈 예뻐요. / 코피 흘렸어요.”

그 다음으로 겪는 심리적응의 문제로 적응안정기 베트남 여성은 한국인의 체면치레 행위로 인해 사회적 편견을 느끼는 반면,

“우리 베트남하고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잠옷같다고 그러니까 한국사람처럼 멋지게 이렇게 다녀야지 화장도 하고 확 이렇게 해야죠. 처음에 와서 저 화장도 안하고 다녔잖아요. 화장안하고 다니니까 한국 사람이 ‘기(광주 사투리 ‘거시기’ -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칭)’ 같다고 기분 나빠요.”

적응초기 베트남 여성은 한국인의 무시와 냉대로 한국생활을 하는 데 심한 사회적 편견을 인식하고 있었다.

“외국 사람하고 같이 일하기 안 좋아요. / 나를 낮춰보는 것. 속상해요. / 여기 한국사람 왔으면 외국사람 한국사람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니까 아줌마들 그냥 가버리세요.”

다섯째,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응안정기 필리핀 여성은 적응초기 필리핀 여성과 달리, 친정 돈 송금에 대한 남편의 이해부족, 남편의 폭력과 알코올중독 등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심한 부부갈등을 겪고 있었다.

“필리핀 사람이 결혼해서도 우리는 다른 나라가면 꼭 부모님 도와줘야 해요. 꼭 돈 보내야 되요. 우리 문화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반대했어요. 결혼했잖아. 근데 왜 돈 보내야 돼.”

“신랑이 술 마시니까 나한테 때리기도 하고 우리 남편 알코올릭. 병원갔다 왔어요. 신랑은 죽었어요. 지금 아기랑 혼자 살아요. / 수녀님 많이 도와주시고 아기 낳을 때, 남편 일도 없고 돈도 없고 힘들었어요. 쉼터에서 많이 살았어요. / 임신인데 때렸어요. 술 먹을 때 식당에서 있었는데, 계속 싸우니까. 그냥 가라고 같이 살면 못살겠다고 이혼하고도 남편이 와서 때렸어요. / 남편이 때려요. 아기 있어요. 안돼요. 해도 때려요. 배도 때려요. 아기 죽으면 어떻게요. 도망 나왔어요.”

둘째, 직접적으로 돈에 팔려온 신부라고 비하하는 시어머니로 인해 심한 고부갈등을 겪고 있는 여성도 있었다.

“네가 얼마짜린 줄 아니 일해라.”

이와 같이 안정기 적응집단의 필리핀 여성

표 5.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에 따른 심리적 차이

	2년 이하	2년 이상
일상생활의 어려움	· 의사소통어려움(한국어 전혀 못함) · 음식 · 교통체계 차이 · 물건 살 때 · 날씨차이	· 서툰 한국어(특히, 자녀교육의 어려움) · 음식
가족갈등	· 부부갈등-의사소통 어려움, 생활비관리(남편이 이해를 많이 해주고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편) · 고부갈등-친구처럼 잘 해주셔서 어려움 없지만, 의사소통문제는 해결되지 않음(사전보고 친척들과 대화, 가족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낀 적 없음)	· 부부갈등-성격차이(아내의 급한 성격), 남편의 컴퓨터중독, 남편이 말 안 들으면 밥 안주니까 잘 해주고 이해해주는 편. · 생활비 관리 대부분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 (이주여성 1명만 직접 통장관리) · 고부갈등-의사소통 어려움(동서 간 차별 대우, 눈치) 있지만, 아기 봐 주고 음식 만드는 것 도와줌
자녀양육	· 자녀가 한국인으로 성장하기 바람 · 자녀와의 대화-주로 한국어로 하고 있지만, 성장하면 베트남어를 가르치고 싶음 (어머니와 대화, 친정부모와의 유대 등) · 외국인 엄마에 대한 자녀의 편견-조금 이상하겠지만 부끄럽거나 미안하지는 않음	· 자녀정체성-한국인으로 성장하기 바람 · 자녀교육은 주로 한국어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엄마와의 유대를 고려하여 베트남어도 가르치고 싶음 · 외국인 엄마에 대한 자녀의 편견-엄마가 한국인이면 더 좋겠지만 베트남인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길 바람
성 역할	· 가사일 남편이 잘 도와주는 편 · 베트남 남자들이 더 술 많이 마시고 여자에게 폭력 휘두름	· 가사일 남편이 많이 도와주는 편 (애기 봐주기, 청소하기, 설거지 등) · 베트남경제 어렵고, 베트남남자 폭주 함
사회적 편견	· 한국인의 무시와 냉대, 취업곤란, 한국친구 사귀기 어려움(주로 언어장벽 때문)	· 한국인 걸치레 중시(화장), 외국인 이주 여성에 대한 비하(이주여성 호칭할 때, ‘기아(광주사투리)’라고 하면 기분 나쁨), 베트남 국가나 경제무시 · 한국인 참 좋지만, 우리들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냥 나둠
자치모임	· 베트남 여성 자치모임 있지만, 별로 안 좋아서 안 감(집단면담 참가여성 모두) · 한국친구에게 한국음식, 한국어 도움 받음(한국생활 적응에는 베트남 친구보다 한국 친구가 더 많이 도움 됨)	· 한 달에 한번정도 자치모임 참여-모국어로 대화하면 속이 시원함, 정보교환 없지만, 한국에 먼저 온 사람의 경험 도움 됨 · 교회활동-한국친구 사귀기(한국어와 애기 목욕하는 것 등 도움 받음)
친정 돈 송금	· 추석, 생일, 설 등에 용돈 보내는 정도	· 시부모에게 생활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친정에 송금하기 어려움(돈 있으면 친정 도와주고 싶다)
지자체 서비스 활용	· 지역 결혼이민지원센터 활용-한국어, 영어, 요리, 한국문화와 한국생활 및 컴퓨터 교육 등 (초기 언어소통의 어려움 있었지만, 현재는 컴퓨터도 배울 수 있을 정도)	· 지역 결혼이민지원센터 활용-한국어, 요리, 컴퓨터 (취업위한 자격증 취득) 등 · POP, 컴퓨터, 한국어능력시험 강좌 등의 프로그램 지원을 더 요망 · 정부의 생활비 지원 요망(자녀교육비, 장난감 구매 등 지원) · 이주여성을 위한 취업알선 프로그램요망
향후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준비	· 한국어, 한국문화 빨리 배우고 익혀서, 운전면허증 취득하고(돈 벌 수 있다), 한국 요리도 잘하고 싶음	· 한국어 잘하고, 직장 잘 다니고, 돈 많이 벌기

표 6.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에 따른 심리적 차이

	2년 이하	2년 이상
일상생활의 어려움	· 서툰 한국어말 · 음식 · 제사 · 날씨	· 의사소통 어려움(과거 남편과 대화가 안 될 정도로 한국어말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괜찮다) · 집에 돈 송금하는 것에 대한 남편의 이해 부족 · 남편의 폭력과 알코올중독
가족갈등	· 부부갈등-언어와 음식문제 외 갈등 없음(신혼이라 남편이 잘해주는 편) · 생활비는 대부분 남편이 관리함 · 고부관계-시모가 음식 만드는 것 가르쳐주는 정도. 아직 큰 갈등을 없음	· 부부갈등-남편폭력과 알코올중독, 남편의 무능력(경제적 어려움), 남편의 무관심, 결혼 후 남편의 외도(옛 애인과 만난 후 이주여성에게 이혼요구, 현 이혼), 생활비 관리 문제 등 · 생활비는 대부분 부인이 관리함 · 고부갈등-주로 돈 문제로 갈등(집에 송금하거나 자녀 질병 시 돈 쓰는 것, '네가 얼마짜린 줄 아니 일해라'라고 직접적으로 구박하는 시모도 있었음), 형제간의 차별대우
자녀양육	· 자녀양육 및 교육은 한국식으로 시키고 싶음(대부분 지금 자녀가 없어서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음) · 한국어, 영어는 반드시 가르치고 싶음	· (다른 민족보다) 강한 자녀에 보임('이혼해도 애는 꼭 데려와야 해요, 사랑하니까 힘들어도 같이 있어야 해요') · 일할 때, 자녀 맡길 곳 부족으로 어려움 · 4학년까지 한국에서 교육시키고 그 이후는 필리핀에서 교육받게 하고 싶음.(한국의 사교육비 문제, 영어교육 가능)
성 역할	· 필리핀 남자보다 한국남자가 가사 일 더 잘 도와주는 편(현재 이주여성 대다수가 신혼초기였음)	· 남편이 가사일 잘 안도와주고, 집에만 들어오면 뭐든지 그냥 시키기만 함('밥줘')
사회적 편견	· 한국인 친절하지만, 무시할 때 기분 나쁨	· 한국인 친절하다
자치모임	· 필리핀 동료모임 활성화(서로에게 일자리 알선, 한국생활 문제발생시 해결해주고, 많은 도움 줌)	· 필리핀가게 모임(매주 토요일 교육과 모임) · 한국이름으로 개명할 때, 한국친구의 도움 받음(1인 여성)
친정 돈 송금	· 남편들이 필리핀 부모에게 송금(부인의 특별한 요구 없음)	· 남편에게 얘기해서 집에 송금하고 있음 · 현재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여성들도 집에 송금하고 있었음
지자체 서비스 활용	· 지역 결혼이민지원센터 활용(한국어 교육, 한국음식 만들기 등)	· 여성 쉼터 지원-이혼, 남편폭력, 산후조리 · 정부지원-자녀 유치원교육비(정부, 자녀 사교육비 지원 요망)
향후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준비	· 한국어 빨리 익히기 · 한국생활습관 알아가기	· 직장 구한 후(이혼 후 생활대책마련) 자녀 유치원에 보내야 함. · 자격증을 따서 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함

이 초기적응 필리핀 여성이나 다른 국적의 여성들에 비해 심한 부부갈등 겪고 있는 것은 두 명을 제외한 초점집단면담에 참여한 모든 여성들이 별거, 이혼, 사별한 상태라는 독특성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성 역할에서 신혼기인 적응초기 필리핀 여성은 남편들이 가사 일을 잘 도와주는 편이라고 보고했지만, 적응안정기 필리핀 여성의 남편은 가사 일을 잘 도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에만 들어오면 손 하나 움직이지 않고 부인들 시키기에 바쁘다고 불평을 호소했다.

“집에 와서 게임만 해요 밥 줘, 물 줘, 다 줘.. / 설거지 제일 싫어해요 / 술만 안마시면 잘해요 빨래도 하고 근데 술만 마시면.. 근데 도와주는데 잔소리가 많아요”

표 2에서 표 6은 각 국적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거주기간에 따른 심리적응 차이를 요약한 내용이다.

2. 일본,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 간 차이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동아시아 5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문화 간 특성을 살펴본 결과, 표 7과 같이 국적별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문화와 자국문화 간에서 한국에 와서 직면하는 문화충격, 가족구조, 종교, 음식문화, 주거문화, 시간개념, 사대주의와 인종차별, 대화방식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 등의 문화간 차이를 보였다.

표 7에서 동아시아 5개국 여성이 한국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대표적인 문화충격은 제

사와 한국의 목욕문화(예, 대중탕)였다.

“(일본) 제사 힘들어요 음식도 많이 만들고 일본에서는 춘분, 추분 딱 두 번 지내요 성묘는 자주 해요 한국처럼 제사음식을 하지는 않아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중국) 중국에 제사 있어요 똑같아요 조그만 사당 앞에서 제일 불편한 건. 밤에 한다는 거. 중국에서는 밤에 안 해요 시댁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진짜 놀랐어요 상 차려야 하는데 할 줄 모르고 답답해요

(조선족) 큰집이 제사 있는데. 어머니 일주일전에 저한테 전화왔어요 집에서 노니까 큰집에서 좀 도와줘라. 시어머니 말씀하시니까 네 했는데. 아니야 무서워 그때는 불안해서 무서웠어요 죽은 사람하고 어떻게 밥 먹어요 남편도 이해 못해요 제가 못 간 거는 인정하는데 가서 후에 제사음식 가져왔어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먹으니까 였했어요 요끝까지. 이틀 동안 안내려가요 딱 요기에요 이틀 동안 후회했어요 그렇게 무서워요 문화 안 통하니까.

(베트남) 음식도 다르고 절하는 것도 다르고 아침 10시에 해요 시간도 달라요 베트남에서는 새벽에 음식 다하고 9시 10시에 제사 해요 12시면 다 끝나요 한국처럼 사람이 죽은 날짜에 제사지내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잔치해요

(필리핀) 필리핀 제사 없어요 제사 복잡해요 음식장만하고 추석, 설날 성묘가고 시어머니 도와드렸어요 필리핀에서는 하루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일본 여성들은 한일역사로 인해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베트남 여성은 한국보다 떨어

표 7. 일본,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간 차이

	일본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문화충격	· 한일역사 재해석 · 애정표현(시모의 ‘사랑해’ 당황) · 상차림과 식사량 · 한국의 빨리빨리 · 호적 변화 없음(결혼 후 남편 성 따르지 않는 것) · 어린아이 포대기 감싸기 · 개인사공간무시 · 한국 온돌 · 대화방식(한국인 직설적) · 목욕습관차이(불결한 대중탕) · 불결한 주위환경 · 존댓말 · 종교 갈등 · 전화예절(길고 빈번, 잦은 안부전화 요구) · 교통체계차이 · 음식 나눠먹기 · 제사(많은 음식)	· 한국의 빨리빨리(‘여유 없다’) · 한중 남편 경제력 차이 · 생활습관차이(남편 수면시간, 좌식생활 등) · 엄격한 식사예절(어른먼저 식사) · 제사(낮은 시간 제사) · 산후조리방식(혹설탕, 대추, 계란 등 먹음)	· 제사(망자와 음복) · 온돌생활불편 · 한국의 빨리빨리(대국답지 않다) · 언어억양차이 · 음식	· 한국체면중시(화장, 펌, 외모) · 날씨 차이(보일러 등) · 대중목욕탕(타인 앞 노출) · 편리한 교통체계(오토바이, 자전거보다 차가 많다) · 옷(아오자이, 긴 팔과 긴 바지) · 친족체계(남녀노소호칭) · 제사음식준비(베트남, 낮에 이웃과 음식 나눠먹는 정도)	· 매운 한국음식 · 대중목욕탕(필리핀, 스파) · 높은 사교육열 · 혼례문화 · 날씨 차이 · 제사(필리핀 국교, 가톨릭)
가족구조	부계제	부계제	부계제	부계제	부계·양계제
종교	불교, 샤머니즘 (이주여성, 모두 통일교)	불교	불교, 기독교	불교, 조상숭배	가톨릭
음식문화	· 소식, 외양중시 · 한국음식 맵고 짭 · 김치, 김장 등	· 지역별 차이(북쪽:국수, 만두, 짜고 기름짐 / 남쪽:쌀, 달고 매콤) · 향신료	· 이주여성 거주지 대부분 북쪽 한국식과 비슷(맵고 짜지만 한국음식보다는 덜 매움)	· 쌀, 쌀국수 등 한국음식과 비슷 · 야채과일풍부 · 향신료	· 필리핀 음식 달고, 기름기 많음
주거문화	· 다다미, 침대 · 풍부한 수납공간 · 입식생활	· 입식생활 · 주거 입주시 한국처럼, 실내장식 갖추어지지 않음(전기, 가스 등) · 높은 천장	· 입식생활 · 중국인의 주거방식과 동일 · 과거, 한국처럼 아궁이사용	· 좁고 긴 주거 공간(한국, 정사각형 집 구조 / 베트남, 직사각형 집 구조) · 수중 집 · 세로로 높음	· 바하이쿠보(니파 헛)방 구분 없고, 침실과 식당으로 된 큰 공간만 존재

표 7. 일본,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간 차이

(계속)

	일본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시간개념	· 엄격히 시간준수	· 한중간 만만디와 빨리빨리 차이 있지만, 최근 시간 개념 개인차 이	· 시간개념 개인 차 문제	· 시간개념 희박 (기후로 인한 생활습관)	· 필리핀 타임(기후로 인한 생활습관)
사대주의와 인종차별	· 서구화경향 강함 · 선진국 선호 · 한일 간 감정으로 한국 적응 곤란	· 자본주의 이후 선진국 선호 · 과거정치영향(러시아, 북한 우호 / 일본 적대)	· 최근 서구화(자본주의)로 한족과의 교류풍부 · 러시아, 북한, 한국 선호 · 일본적대(조선족 과거사)	· 중국과 프랑스 영향 강함 · 선진국 선호	· 스페인 영향 강함 · 선진국 선호
대화방식	· 혼네와 다테 (속마음 드러내지 않음) · 우회적인 대화	· 개인차이(직설적 대화보다 우회적 대화 선호)	· 직설적 대화(한국인보다 덜 직설적인 편)	· 우회적인 대화	· 우회적인 대화
한국 문화 인식	· 한일 간 과거사(한국인 무섭다) · 경제수준 낮은 나라로 알고 왔지만 그렇지 않다. · 정 많은 나라	· 최근 드라마 통해 한국 인식 · 드라마와 현실 간 괴리감 큼(남편과 드라마 속 주인공 비교, 사는 집과 드라마 속 집 비교, 부부간의 여가 부러움)	· 오래전 드라마들 통해 한국 익힘(북한보다 잘사는 나라, 별천지) · 암흑시대, 향수 병 걸릴 정도 · 한국 빨리빨리 여유 없음, 기회가 많은 나라	· 드라마 통해 조금 알고 온 정도 (전혀 모르고 온 여성도 있었음) · 좋은 날씨, 편리한 생활, 안전한 나라	· 최근 드라마, TV에서 한국 익힘(멋지고 잘생기고, 술 안마시는 남자, 깨끗한 나라, 무서운 시어머니) · 생각보다 예쁘고, 좋은 나라, 경제부강, 편리한 교통, 사계절 등

지는 자국의 경제수준으로 인해 한국인의 체면중시 경향에 힘들어했다. 그 외에도 가장 많이 겪는 문화충격으로는 음식과 주거문화였다. 동아시아 5개국 여성들은 각국의 음식문화와 한국의 음식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김치와 매운 음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또한 입식생활을 하다가 한국의 좌식생활에 적응하는데서 오는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둘째, 가족구조는 필리핀이 부계제이면서

양계제인 것을 제외하고 모두 부계제였다. 일본은 아들이 없는 경우, 성을 잇기 위해 딸의 아들에게 부의 성을 승계하거나 딸만 있는 경우 딸이 결혼 후에도 부의 성을 승계하였다. 중국은 소자녀 시대 이후, 대를 잇기 위해 사위에게 성을 잇게 하기도 하는데, 최근 성인이 된 후, 자신이 모의 성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었다. 조선족은 과거 한족과의 결혼을 금기하고 한국인과의 결혼을 선호하고 있으나, 최

근 서구화되면서 한족과의 혼인이 늘어나고 있었다. 베트남은 최근 여권신장으로 인하여 부모 성을 모두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필리핀은 여성이 결혼 전 부모 성을 모두 사용가능하지만, 결혼 후에는 배우자의 성을 사용하였다.

셋째, 필리핀의 종교가 가톨릭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의 종교는 대부분 불교였지만, 종교를 매개로 한국으로 결혼해온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통일교였다.

넷째, 시간개념에 있어서 일본 여성은 엄격한 반면,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은 희박했는데, 이는 자국의 더운 날씨에서 비롯된 생활습관으로 보인다. 조선족 여성은 한국인의 빨리빨리와 여유 없음 등에 답답해했지만 만만디에 익숙해있는 중국 여성보다는 다소 엄격한 시간개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동아시아 5개국의 사대주의적 경향과 인종차별은 정치에 영향을 많이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베트남은 중국과 프랑스의 영향이 지배적이었고, 필리핀은 언어에서도 아직까지 스페인의 영향이 남아있었다.

여섯째, 대화법에서 조선족 여성은 직설적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반면, 대부분의 동아시아 여성들은 우회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대화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도 일본 여성이 타인에게 가장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해 동아시아 5개국 여성들은 대부분 드라마를 통해서 다소 정보를 접하고 왔지만, 한국에 와서 직접 생활하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인식변화를 보였다.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반면, 일본 여성은 한일 간의 과거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경제수준이 낮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며 한국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중국과 조선족 여성은 한국인의 여유 없는 생활과 한국에 오기 전에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과 현실과의 큰 괴리감 등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3. 한국인과 일본,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들간의 토착심리적 문화정서 비교

Berry의 문화적응수준을 강조한 기존의 문화적응 연구들이 문화통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으로의 동화를 강요받거나 여성결혼이민자들 스스로 한국사회에 융합되어버린 것이 현실이다. 이는 한국인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국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생한 결과로써, 동아시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토착심리적 문화정서도 한국인과 동아시아 5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표 8은 기존의 연구자들이 한국인의 심리로 분석한 한국인의 토착심리적 문화정서를 일본,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와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표 8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한국인의 토착심리로 알려져 있는 문화정서는 동아시아 5개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각 나라별로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이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특성과 정서를

표 8. 한국인과 동아시아 5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토착심리적 문화정서 비교

한국인	일본	중국(한족,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우리성	• われわれ(우리) • わたしたち(나들) • だんたい(단체)	• 我們(내가 포함되지 않는 우리, 예, 우리 학생) • 咱們(내가 포함된 우리, 예, 우리 가족), 我們보다 친밀한 관계	• tôi(나) • chúng tôi(나들)	• Kapwa(same blood fellow) • Kapwa tao(human-being)
내집단-외집단	• 내외(ないがい)집단 • 내(うち) • 외(そと)	• 邊(bian, 편) • 우리편(我們這邊) • 남의편(別人那邊)	• nhóm tôi(나편) • nhóm bạn(너편)	• hindi ibang- tao(pakikisa / one of us) • ibang- tao(pakikisama / outsider)
체면	• メンツ (social image) • たいめん(體面)	• 面子(mian zi, 체면) • 臉(lian, 얼굴)	• thể diện(체면, social image)	• amor propio(스페인어, 체면) / hiya(shame) • dignidad(dignity, social face, keep one's self-respect) • walang hiya(loss one's self-respect)
정 '정이 많다'	• 정(じょう, 情) • 심정(こころ, 心)	• 情(qing) • 心情(xinqing) '정이 깊다'	• tình/tình cảm(정) • tâm tình(심정)	• kasundo(tender feeling, 정) • kapalagayang loob(heart) • pakikiramay(sympathy, 심정)
한 '한이 났다'	• 恨(うら)み 원한	• 恨(hen, 원한)	• hận(원한, 恨) • nỗi ác cảm(나쁜 감정)	• sama ng loob(bitter regret, bad feeling)
눈치	• きてんがきく ('눈치가 빠르다') • いしんでんしん (以心伝心)	• 眼色(yan se) • '心有灵犀一点通(마음이 통하다)'	• tình ý(눈치) • thần giao cách cảm (이심전심)	• nakakairita(guess one's thinking) • pakikiramdam(이심전심)
겸손	• けんじょう(謙讓)	• 謙虛(qian xu)	• khiêm tốn	• pagkapa hiya(humility)
인고	• にんたい(忍耐) • 古(く)あれば樂(らく)あり, (고진감래)	• 忍苦(ren ku) • 苦盡甘來(kǔjǐngānlái)	• nhán nhịn(인내) • Khổ tận cam lai(고진감래)	• pagtitiis(인고) • kung walang hirap walang sarap(고진감래)
마음의 빚	• 借(かり)	• 心債(xin zai, 마음 안에 있는 채무) • 欠情(qian qing, 마음의 빚을 지다)	• ân nợ	• utang na loob
행복	• 幸福(こうふく) • 幸(しあ)わせ	• 幸福(xing fu)	• hạnh phúc	• kaligayahan(happiness)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동아시아 5개국 여성 54명을 대상으로 그림 2 한국사회의 다문화공동체 문화적응모형의 1단계 연구가설모형을 검증하였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서 겪게 되는 심리내적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거주기간에 따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심리적응간 차이를 살펴 보았고, 둘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직면하는 문화충격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5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간 차이와 유사성을 탐색하였으며, 셋째, 한국이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한국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과 동아시아 5개국의 토착심리적 문화정서를 비교분석하였다. 광주·전남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를 각 국적별로 10명 내외씩 초점집단면담하여 Giorgi(1985)의 현상학적 방법에 따라 질적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 5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을 하면서 겪는 심리적응의 문제는 일상생활의 어려움, 가족갈등, 자녀양육, 성 역할, 사회적 편견, 자치모임, 친정 돈 송금, 지자체 서비스 활용, 향후 한국생활적응을 위한 준비 등이었다. 거주기간 2년을 전후로 적응초기집단과 적응안정기집단간의 심리적응에

서는 자국과 다른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성 역할, 부부갈등, 자녀양육 및 사회적 편견 등에서 다소 상이한 차이를 보였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국적과 적응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한국어와 한국음식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보고된 국제결혼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또한 한국어와 한국음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정부, 지자체 및 결혼이민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과 음식문화에 치중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는 이주 초기에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고, 향후 한국에서 보다 잘 생활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해결과제였고, 음식문화차이는 가족간의 문화차이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화적응스트레스 중 하나였다. 자녀출산 후 미역국과 밥을 먹는 한국여성들과 달리,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산후조리하는 과정에서 음식문화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 외에도, 남편 생일을 위해 손수 준비한 케익과 일본식 상차림(화려한 장식 강조)을 거부당한 일본 여성, 남편이 향신료를 싫어해서 중국음식을 만들어 먹지 못하는 중국 여성, 시어머니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먹고 싶거나 생각날 때 혼자서 몰래 해 먹는다는 베트남 여성 등의 사례에서 그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가족갈등은 남편의 폭력, 알코올, 잦은 이직으로 인한 경제곤란, 고부갈등 등이 주 문제였고, 생활습관(수면시간 차이, 예고 없는 외

출요구 등)에서 오는 어려움 외에도 부부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무자녀, 자국 연금지급 이유로 국적취득거부 등)에서 발생하는 것들이었다. 남편음주가 가정폭력과 더불어 여성결혼 이민자의 결혼생활의 심각한 부적응을 야기한다는 기존연구결과(신경희, 2004; 양선화, 2004)처럼, 본 연구에서도 남편음주는 가족해체에서 자녀양육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이는 최근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향후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중에서 적응안정기의 필리핀 여성들은 별거나 이혼을 선택하였고, 적응 초기 중국 여성은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매 맞으면서도 살아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한 필리핀 여성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채 남편과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현재 한국의 불법체류자로 전락되어 있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가정폭력문제는 본 연구의 중국과 필리핀 여성결혼 이민자들의 문제만이 아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에서의 위상과 인권과 직접 연관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 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여성은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생활하기 궁핍한데도 필리핀 가족에게 돈을 송금할 정도로 원가족과 강한 유대를 보였고, 이혼 후에도 자녀는 자신이 키워야 하는 삶의 전부이자 분신과 같은 존재처럼 생각했다. 따라서 적응안정기집단의 필리핀 여성들은 남편폭력, 산후조리 등으로 쉼터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녀교육문제에

대한 정부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였다. 또한 이들은 이혼 후 생활대책 마련을 위해 자격증 취득 후 직장을 구하여 향후 한국생활에 적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자녀양육과정에서도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들이 한국인으로 잘 성장해주길 바랐고, 교육수준이나 경제수준에 따라 영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한국사회의 가부장권 문화나 남성우월주의 의식이 부부간 평등성 확보나 시댁과의 관계 수립에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최연실 등(2008)의 연구결과처럼, 본 연구에서도 거주기간에 따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성 역할과 부부갈등에서 가장 큰 심리적응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세대간 변화에 따른 한국남성들의 문제로 여겨질 수 있지만, 초기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유교적 가부장제도를 한국문화의 전부인 양 남편과 시댁부모에게 강요받으면서 순종해온 결과이거나 혹은 초기 한국정부와 지자체의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유교적인 전통 한국문화만을 강조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한국문화에 동화시키려고 한 결과일 수 있다.

사회적 편견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일본과 조선족이었다. 일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일간의 과거사로 인하여 심한 피해의식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었고,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위장결혼’, ‘돈밖에 모르는 사람’, ‘경제적 빈곤자’ 등 사회적으로 낙인된 한국인의 편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 외의 여성들은 여성결혼 이민자라고 하면 낮추어보거나 다른 시선으로 보는 한국인의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 내에서 생활하는 주변인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지자체서비스나 결혼이민지원센터 등의 활용 면에서도 조선족 여성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한국어 지원보다는 취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프로그램의 지원을 원한 반면(이미 자신이 배운 비누공예를 활용하여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조선족 여성도 있었음), 다른 국적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초기에는 한국어, 요리, 문화 등의 지원을 원했지만, 안정기에 접어들수록 점차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취업알선 프로그램(자격증 취득)과 자녀양육지원 서비스를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rry와 Kim(1998)은 시간경과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문화이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접촉(이민) 이전의 시기, 접촉기, 갈등기, 위기기, 적응기 등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고, 국내에서 최연실 등(2008)은 한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적응을 각 단계에 따라 살펴보았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문화적응과정 또한 Berry와 Kim(1998)의 다섯 단계에 따라 각 단계별 발달적 추이를 세부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직면하는 문화충격과 갈등을 알아보기 위해 동아시아 5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국적별 문화차이를 질적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여성결혼이민자들 모두에게 가장 큰 문화충격은 ‘제사’와 ‘음식’이었다.

한국의 제사는 동아시아 모든 여성들에게

문화충격이었는데, 이른 시간부터 많은 제수 음식을 준비하고 늦은 시간에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를 힘들다고 하였다. 특히, 필리핀 여성은 국교가 가톨릭이기 때문에 제사 그 자체가 문화충격이었고, 조선족 여성은 망자와 함께 음복하는 것에 대해, 베트남 여성은 점심에 함께 음식을 나눠먹는 베트남 풍습(베트남에서 제사는 한국의 잔치와 유사)과 다른 점에 대해, 일본 여성은 성묘정도로 예를 갖추는 일본풍습과 다른 점에 대해, 중국 여성은 늦은 시간 제사를 지내는 것 등에 대해 문화충격을 경험했다. 또한 한국음식을 대표하는 김치는 낯설 뿐만 아니라 맵고 짠 음식이어서 자국의 입맛에 길들여져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다. 한 필리핀 여성은 매일 매 식기에 치킨을 배달해 먹으면서 생활하기도 했다.

그 외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은 날씨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고, 대중탕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겪는 또 다른 문화충격이었다.

양계제인 필리핀을 제외하고 동아시아 5개국은 모두 부계제였고, 자녀수의 축소로 인해 성이나 가계를 잇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었다. 최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양성 모두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국에 이주해온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종교적으로 통일교가 매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국적별로 필리핀이 가톨릭이고 나머지 국가는 불교였다.

주거공간은 대부분 한국과 비슷하지만 좌식과 온돌생활을 하는 한국의 전통방식에서 어

려움을 보였는데, 한 일본 여성은 다다미 대신 여러 겹의 이불로 불편함을 대신하고 있었다.

일본인은 시간개념에서 철저함을 보인 반면, 중국과 조선족은 만만디라는 대국의 여유와 한국의 ‘빨리빨리’에서 생활습관의 차이를 보였다. 필리핀 여성과 베트남 여성은 필리핀 타임이라고 스스로 지칭할 정도로 시간개념이 희박했는데, 이는 자국의 더운 기후로 인해 정확한 시간에 맞춰 생활하는 것 자체가 습관화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문화에 대해 몇몇 드라마를 통해 안 것이 거의 전부였고, 이주기간이 오래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전혀 한국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으로 오기도 했다. 최근 드라마나 한국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온 여성결혼이민자들도 현실과 드라마 속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생활 방식에서 문화차이를 경험했다. 특히 일본과 조선족 여성의 경우,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인식의 부정적 변화를 보였는데, 일본 여성은 한일감정으로, 조선족 여성은 한국에 대한 환상과 이질감 및 한국인의 편견 등에서 한국문화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반면,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은 경제가 낙후한 자국보다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보다 좋다는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보였다. 이는 타 국가여성들에 비해 한국문화와 유사한 유교권 문화에서 생활한 동북아시아 일본과 중국(조선족 포함) 여성이 한국에서 더 많은 문화차이를 지각한다는 정기선 등(2007)의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동아시아 5개국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간

차이와 유사성을 탐색한 후,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5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토착심리적 문화정서를 한국인의 토착심리적 문화정서와 비교해보았다. 즉, 기존 연구자들이 한국인의 토착심리로 개념화한 우리성, 내집단-외집단, 체면, 정, 한, 눈치, 겸손, 인고, 마음의 빛, 행복 등이 동아시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5개국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문화보편적인 것인지 혹은 문화특정적인 것인지 알아본 결과, 동아시아 5개국에서도 한국인의 고유한 토착심리적 개념들이 존재하지만, 국적별 각 개념의 의미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대표적인 차이를 보인 정서는 우리성이었고, 정의 경우 중국인의 정은 ‘깊다’와 한국인의 정은 ‘많다’로 그 차이를 나타냈다. 한국인의 대표정서라고 할 수 있는 한은 맺히고 풀고 하는 과정이 있는 반면, 동아시아에서 한은 원한의 의미가 가장 강했다. 일본사회의 대인관계에서 눈치는 필수요인인 반면, 다른 국가에서 눈치는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했고, 이심전심이 보다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요인이었다. 동아시아 모든 국가에서도 한국처럼, 체면이나 사회적 이미지를 중시여기기 때문에, 체면이 손상될 때 느끼는 수치심은 강했다(예, 필리핀의 물염치한 사람 *walang hiya*).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동아시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정서를 한국인 고유의 토착심리적 관점으로 이해하거나 한국과 다른 문화로 차별화하려고 한다면, 한국이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데 여혼결혼이민자들을 진정한 한국인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고유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교문화적 토착심리 관점(cross-cultural indigenous approach)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추세로 보아 향후 10년 이내 한국은 서구의 다문화 사회를 능가하는 다민족·다문화의 분포를 보일 것이다. 대부분의 인종분포가 아시아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각 나라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 색채는 다르다. 한국인이 여성결혼이민자 출신국가 고유의 문화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할 때, 비로소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이고, 그들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고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국어, 음식 및 생활습관의 차이이다. 이 부분은 여성결혼이민자가 부담해야 할 과제이지만 한국인의 상호이해와 존중이 가능한 심리사회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때, 여성결혼이민자는 진정한 한국인으로 거듭날 것이고, 한국인도 그들의 문화를 편견 없이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세계화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화두이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한국은 세계화 속에서 동아시아의 창조적 국제네트워크망을 형성하게 된다.

본 연구는 그림 1의 한국사회의 다문화공동체 문화적응 모형을 개발하려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가설모형은 첫째, 두 문화가 모두 주체가 되어 문화접변을 다각도, 즉 심리내적, 사회문화적, 가족심리적 측면으로 이해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본 연구모형은 기존의 대표적인 문화적응 이론가 Berry(2003)가 주장하는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을 개인, 가족, 사회·문화로 보다 세분화하고,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가치와 국제네트워크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우리 사회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정책과 지역사회 교육·문화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셋째, 기존 연구에서 제안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이 생활적응전략수준에 머물렀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은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을 탐색했다는 점이다. 넷째,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변화를 통해 상호 존중과 수용할 수 있는 문화교류의 장을 창조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세계화에 발맞추어 동아시아의 중심에서 한국이 국제교류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 원가족과의 정서적 역동성을 탐색해 봄으로써 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보다 심도있게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한국 다문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문화적응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탐색적 예비 작업이었기 때문에, 한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응, 각국의 사회문화적 차이와 유사성 및 토착심리적 문화정서만을 파악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그림 1의 연구가설모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문화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한국문화만을 지배문화로 강조

하거나 동아시아 여성결혼이민자의 자국문화를 타문화로 배타한다면 여성결혼이민자는 영원히 한국사회로 통합되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결혼을 매개로 한국에 정착하고 생활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가족에 대한 탐색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형성 자체가 이질성과 이문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의 원가족 및 한국인 배우자의 원가족에 대한 후속 연구는 한국 내 작은 동아시아를 형성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란 (2005). 다문화사회를 위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연구. 이주여성의 삶을 통해서 본 공존과 상생의 문화. 서울 여성포럼 자료집.
- 남순현 (2008). 청소년 모방 자살사고의 심리적 기제에 관한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 19, 51-87.
- 문경희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21세기 정치학회보, 16(3), 67-93.
- 박주희, 정진경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395-432.
- 신경희 (2004).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의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 석사학위논문.
- 양선화 (2004). 상담사례에서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사)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자료집.
- 윤형숙 (2004).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4년도 한국여성학회 심포지움 발표논문.
- 이코노미 포커스 (2009. 12. 2).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 명 시대 포용·개방 절실.
- 임채완, 김경학 (2002). 중국 연변조선족의 민족정체성 조사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0(1), 247-273.
- 정기선 (2008).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 특성과 이민생활적응. 호남대학교 개교 30주년 기념 연구소연합국제학술대회집.
- 정기선, 김영혜, 박경은, 이은아, 박지혜, 이승애, 이지혜 (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 101-136.
- 최연실, 이순형, 문무경 (2008). 농촌거주 결혼이민여성의 발달과 적응. 인간발달연구, 15(3), 207-223.
- 통계청 (2009). 인구동태(혼인, 이혼). <http://kosis.nso.go.kr>
- 한경미, 나영주 (2004).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과 개인주의-집단주의에 따른 선호감성 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1), 51-60.
- 황달기 (1998). 일본적 대인관계를 규제하는 문화적 기준. 일본학보, 43, 593-607.
- 홍기혜 (2000). 중국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erry, J. W. (2003). Conceptual Approaches to

- Acculturation. In K. M. Chun & P. B. Organista, & G. Marin (Eds.),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Berry, J. W. & Kim, U. (1998).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In P. Dasen, J. W., Berry & N. Sartorius(Eds.). *Cross-Cultural Psychology and Health: Toward Applications*. London: Sage.
- Camilleri, C. & Malewska-Peyre, H. (1997). Socialization and Identity Strategies. In J. W. Berry, P. R. Dasen and T. S. Saraswath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 Basic Processes and Human Development, 41-67. Boston: Allyn & Bacon.
- Ellis, C. (2005). *Culture Shock! Curious Global Culture Guide: Vietnam*. Whistler Publishing Company.
- Giorgi, A.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In A. Giorgi (Ed.). Pittsburgh, Philadelphia: Dequesne University Press.
- Nam, S. & Han, G. (2009). Comparative Cultural Indigenous Approach on Cultural Emotion of Weness among 5 East Asia Nations. *Psychological Studies*, 54(1), 316.
- Roches, A. & Roches, G. (2005). *Culture Shock! Curious Global Culture Guide: Philippines*. Whistler Publishing Company.
- Searle, W. & Ward, C. D. (1990). The Prediction of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4, 449-464.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D., & Gelfand, M.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2nd. ed.)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1차 원고접수 : 2010. 10. 25.

수정원고접수 : 2010. 11. 15.

최종게재결정 : 2010. 12. 02.

**A study on an acculturation model for the realization of a Korea
Multicultural Community among Japanese, Chinese, Korean-Chinese,
Vietnamese, and Philippine female marriage-based immigrants living
in Gwangju City and Jeollanam-do province**

Nam, Soonhyeon

Honam University

This study sought to develop an acculturation model for the realization of a Korea Multicultural Community. A total of 54 female marriage-based immigrants, composed of 12 Japanese, 10 Chinese, 11 Korean-Chinese('Chosun tribe' residing in northern China, that is, Koreans who were born in China), 10 Vietnamese, 11 Filipinos living in Gwangju City and Jeollanam-do regions, all participated in focus group interviews from April 17 to May 7, 2009.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from each country, according to their period of residence(± 2 years), and the content of their interviews were analyzed by means of the Giorgi phenomenological method. Our results indicated that, firstly, psychological adjustment processes across residence for the five ethnic groups are studied in terms of their general difficulties experienced in terms of living, family conflict, parenting, gender roles etc. Secondly, the various degrees and levels of culture shock experienced by female marriage-based immigrants in Korea were Korean traditional religious rituals('jesa' in Korean), food, use of public baths, and lifestyle habits according to regional climate. Lastly, the indigenous psychological cultural emotions of Koreans(eg. Weness, In-group/Out-group, Chemyon, Cheong, Han, Noonchi) were compared with females from 5 countries in East Asia. Our results suggested that interpreting them from a cross-cultural indigenous approach was the most appropriate method to use.

Key words : acculturation, female marriage-based immigrant, Korea Multicultural Community, psychological adjustment, culture shock, cross-cultural indigenous approach